

## 생 명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말씀에서 생명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사 이래 인간의 최대 관심은 생명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노력이 궁극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죽음은 죄로 부터 온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 생명에 대한 궁극적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해답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창조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혼동하며 쓰는 용어가 immortality, 불사성과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immortality 는 불사성으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있었던 상태가 불사성입니다.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흠으로 빚어 아담을 지으신 후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지 않을 때 사망은 없습니다.

이 불사성은 영혼의 불사성과 육체의 불사성을 포함합니다.

이 불사성은 죄를 짓지 않는 끝없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 교제 안에서 아담에게 약속된 능력입니다. 만약 아담이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과 동시에 육신의 불사성은 종료합니다.

불사성의 상실은 죄로 인해 들어 온 것입니다.

로마서 5 : 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타락이후 육체의 불사성은 잃어 버렸으나, 영혼의 불사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됩니다. 누가 복음 16 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의 불사성을 계속하는 부자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 :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복음 16 :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불사성입니다.

다음에 Eternal Life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Eternal Life 는 불사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이 영생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사성은 있었으나 영생은 없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아담은  
영생의 약속은 가졌으나 영생을 취한 바 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불사성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주신 것이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영생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 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함께 들어와 우리도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가진 사람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확실히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줄 수 있습니다. 불사성은 창조시 그냥 주신 것이지만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영생은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은혜로 오기 때문이다.
3. 인간의 어떤 공로도 영생이 갖는 그 고귀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하십시오.

요한일서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태초부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태초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에 의해 주어질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요한복음 1: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구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공로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공로는 서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를 포기해야 하고, 은혜로 무엇을 얻기 원하는 자는 율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의 약속은 아담에게도 약속의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디도서 1: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약속은 가졌으나 영생을 취한 바 되지는 못했다.

이와같이 영생은 약속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기로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아들로서의 법적 지위와 함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 자는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어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immortality 와 eternal life 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받지만, 불사성의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변화한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 :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구절에서도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벌써 가졌다고 말하나,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심으로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부활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변화한 몸으로 참여하게 될 몸의 부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 4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 4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자던 육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변화한 몸으로 공중에 끌어 올려져 주를 영접하고 그후에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사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불사성과 영생은 모두 회복되고,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죽음에 대한 문제에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5 :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다가 왔지만, 예수님이 죄의 대한 형벌을 담당하신 후로는, 첫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은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해체되기 위해 고통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길 하나님이 첫 번째 사망을 신자들의 현재의 삶속에서 금방 제거하시지 않은 이유는, 첫번째 사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는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다가, 때가 되면 일시구 좋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상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얻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 6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에 우리는 생명, 영생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받아 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화하고, 그것에 실현을 위해 불과 같은 열심히 뛰면 그것이 영생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르침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각 속에 남아 오래 계속되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란 것은 무엇이나 하면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사상입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것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서 문명의 노예가 되어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것도 주체성의 상실이며,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자본을 만들기 위한 도구화 하는 것도 자본 주의 안에 인간들이 겪는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체성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되어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체 사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렇게 주체성을 회복한 인간을 어디서 찾는 것이냐 하면 수령에게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주체성을 회복한 인간의 영원한 형상이며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령이 누구냐 하면 김일성인 것입니다. 김일성은 영원한 수령으로 동지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있어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참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체사상을 자신의 독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식 주체 사상으로 말하면 수령은 주체성을 회복한 인간의 영원한 형상이며 모범으로 동지들의 마음 속에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영생 종교적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입니까?

저는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상 자체가 살아 있어야 함과 동시에 생명을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증거로 다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생명입니다. 만약 다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상이나 신념일 뿐 영생은 아닙니다.

만약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무너지면 영생한다고 떠들던 김 일성의 시체는 안치된 장소에서 쓰레기처럼 끌려 내려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보십시오.

영생으로 인하여 예수님 당신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어 살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영생이며, 아직도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극적으로 산 사람의 간증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어 여러 분과도 나눕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75년 12월 18일, 율곡로 육교 아래서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만에 의식이 되찾았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전신마비가 되어있었고, 그 사람 옆에는 늙으신 어머님과 아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원이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랜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았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날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소중한게 생각했던 돈과 명성, 자존심에 대한 상처, 허탈, 공허감으로 우울증에 빠져, 정신착란에 의해 무의식 중에 차에 뛰어든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의식이 깨어 난 후, 이어서 계속되는 상처의 고통과 절망으로, 그의 마음은 다시 포악해져서 제 목숨을 건져낸 어머님과 아내에게 "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나?"며 눈을 부릅뜨고, 원망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뻗뻗한 몸으로 미움과 증오에 찬 입술로 악독을 뿜어대는 그 처참한 모습은 마치 지옥문을 찾아가는 죽음의 사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신적으로 간호를 하던 아내가 채널을 맞춰 놓은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 많은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해답이며,

그 분 만이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혼란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필요한 자격은

여러분이 죄인이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지금까지 기독교를 반대하며 핍박하던 이유들이, 어떤 큰 힘에 의해 하나하나 흐물흐물 녹아지며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순간 죄사함과 치유의 은총이 그의 온 영혼을 휩싸여 왔습니다.

"미움의 찌꺼기와 뿌리조차도 모두 제거해 버리고 용서하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서약한 순간, 말 못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인생에 드리웠던 모든 슬픈 추억이 사라지며, 마음에 맺혔던 한과 원한이 주님의 피에 씻기어 깨끗히 씻기워지고 치유되는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분노와 원한,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그 후 죽은 것과 같이 마비되었던 제 몸은 서서히 풀려왔고, 비록 흔들리는 자세지만 가까스로 걸을 수 있었으며, 입안에서 맴도는 소리일망정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5년 간을 아내가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창 3:19)라고 하신 말씀에 가책이 되어, 떨리는 몸으로 골방에서 뛰쳐나와 일터로 나갔습니다.

1982년부터 3년 간 신문 배달을 했으며, 지금은 4년째 화장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온 서울 시내를, 흔들리고 떨리는 몸과 다리로 걸어서, 2-3층 상가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숨이 차고 힘들지만, 저는 항상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흔들거리는 몸으로, 화장지 꾸러미를 양손과 어깨에 감고, 몇 시간을 헤매도 하나도 팔리지 않을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하면서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되어,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치유됩니다.

요즘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으로 외치며 전도지와 함께, 화장지를 팔러 다닙니다. 열등감과 괴로움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판매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넘은 절망의 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계곡이 멀지 않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해 준 분은 누구입니까?

전신마비가 되었던 몸이 풀리도록 해준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종교적 가르침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사회적 영생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무궁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중생할 때 성령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사람 안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을 딛고 일어 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사막에서도, 북극에서도, 남극에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생존을 지속해 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 있는 생명은 생존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 생명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산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법을 배우며 생존해 갑니다. 이것이 산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지도, 멸절되지도, 멸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능력이 감소되지도, 시공에 제한되지도 않고, 무한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될 때 용기를 주십니다. 무력할 때 능력을 부여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생한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귀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순종할 때 생명은 우리 안에서 넘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 자신들이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강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런 생명의 능력이 일평생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중생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중생은 다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가 가르침을 받아 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내면에서 생명으로 체험됩니다.

중생의 체험에 의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리가 아닌,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면, 그것은 받아 들였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중생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생명이 개인 안에서 생명으로 체험됩니다. 중생에 의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중생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내부에서 생동적이며 역동적인 살아 있는 생명이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난 자연인은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중생치 못한 인간의 영은 죽어 있어, 중생치 못한 인간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전 2:14 에 이르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의지할 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은 모두 영이 죽어 육만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 육만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중생이 필요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생을 하게 됩니까?

하루는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치 종교 재판소의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존경받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십일조도 꼬박꼬박 드리며, 교회 안에서도 중심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길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삽나이까? 더군다나 나의 어머니는 돌아 가셔서 땅에 묻히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 하셨습니다.

**어떻게 중생을 하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먼저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 복음 5:25 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 :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덕 강연을 많이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 :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고, 마음에 인을 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 :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말은 Spirit gives life.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성령이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에 생명을 주어 살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므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듣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믿어야 중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 성령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역사로 중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다음은 중생한 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참으로 더 큰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죽은 가지에서도 싹이 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지 한번도 장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 매일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